

제공일자	2010. 10. 27(수)	담당자	이경희 전문연구위원	
홍보담당	김세환 부장(3775-9051)	연락처	3775-9043	총 2 매

제목: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유가증권 투자 성과와 시사점

생명보험회사, 해외유가증권 투자 필요성 높아 투자역량 제고 필요

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이경희 전문연구위원과 최원 선임연구원은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유가증권 투자 성과와 시사점』이라는 테마진단(보험동향 2010년 가을호)에서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해외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성과는 국내의 절반수준에 불과하여 해외투자의 역량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축소시키는 방안 마련에 힘써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부채 특성과 국내 채권 시장의 제약, 저금리 환경의 도래 등 복합적 요인으로 해외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FY2000~FY2009 간 해외투자 성과를 보유자산 규모, 수익률, 리스크 및 해외분산투자 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해외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생명보험회사는 전체 22개사 중 FY2000에는 10개사에 불과하였으나 FY2009에는 18개사로 늘어났다. 투자 규모도 FY2000 3,541억원에 불과하였으나 FY2009에는 20조원을 초과하였다. 그 결과 전체 유가증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2%(대형사 15.3%, 중소형사 7.5%, 외국사 3.5%)로 높아졌다. 가장 비중이 높은 회사는 23.2%에 달한다.

둘째, 투자 지역은 미국이 38.5%로 가장 높고 자산 항목은 채권이 80.0%로 압도적이다. 이는 국내 장기채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보유한 부채 듀레이션

에 매칭되는 장기자산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해외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소형사는 대형사와 외국사에 비해 리스크가 높은 신종유가증권 및 기타유가증권 보유 비중이 높다.

셋째, 해외유가증권의 투자 수익률은 FY2000 중반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금융위기 시에는 마이너스 수익률(FY2008 -0.5%)을 나타냈다. FY2000~FY2009 평균 투자에 수반되는 리스크 대비 수익률 기준으로 살펴보면 해외투자성과(2.2%)는 국내투자성과(4.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해외분산투자 효과는 분석대상이 된 18개사 가운데 8개사에서만 나타났다으며, 산업 전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국내유가증권의 위험조정수익률 4.4% vs. 해외유가증권을 편입한 전체 유가증권의 위험조정수익률 4.2%).

동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내년 4월 이후 개정된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risk based capital)가 의무 적용되고, 부채의 시가평가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이 도입될 예정이므로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유가증권 투자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외투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거래비용 측면에서 국내투자보다 높은 성과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리스크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해외투자 시 고수익 추구는 매우 위험하며 내재한 리스크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예: 신종유가증권, 기타유가증권)을 편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생명보험회사들은 해외유가증권 투자 부문에서 목표한 수익 달성을 위한 투자 역량의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에서는 생명보험회사들의 재무건전성 유지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해외투자 현황 및 자금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